

암! "조기발견하면 살 수 있습니다"

암 조기 발견 사례

- ◎ 폐암 : 인천에 거주하는 강○○씨(남/44)는 지난 5월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에서 폐암 유소견 판정을 받고 길병원에서 검사 결과 폐암 확진을 받고 수술후 치료중에 있다.
- ◎ 간암 : 광주에 거주하는 송○○씨(남/55세), 김○○씨(남/54세), 박○○씨(남/51세) 등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증진센터에서 간암 유소견 판정을 받고 종합병원에서 검사중에 있다.
- ◎ 위암 : 대구에 거주하는 이○○씨(남/68), 정○○씨(여/85세), 차○○씨(남/67세)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에서 건강검사 결과 위암 의심 판정을 받고 종합병원에서 위암진단을 받았다.
- ◎ 유방암 : 마산에 거주하는 김○○씨(여/53)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에서 건강검사결과 유방암 의심판정을 받고 동마산병원에서 유방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
- ◎ 자궁암 : 대전에 거주하는 박○○씨(여/52)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에서 자궁암 의심 (caiss IV) 판정후 을지병원에서 확진을 받고 수술예정에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시·도지부 5대 암 검진 현황(2000년 5월 현재)

괄호 안은 암 확진자

지부	폐암 의심자	간암 의심자	위암 의심자	유방암 의심자	자궁암 의심자	비고
서울	1(-)	1(-)	-(-)	1(1)	6(-)	* 총 검사인원: 109,086
부산	2(-)	1(-)	31(1)	5(1)	2(-)	
대구(-)	-(-)	4(3)	2(-)	-(-)	-(-)	
인천	3(2)	1(-)	3(-)	1(-)	3(-)	* 자궁경부암 확진은 Class IV 이상
울산	-(-)	-(-)	-(-)	-(-)	-(-)	
경기	2(-)	8(-)	4(1)	4(-)	-(-)	
강원	1(-)	1(-)	8(-)	1(-)	-(-)	
충북	1(-)	-(-)	2(-)	-(-)	1(-)	
충남	-(-)	1(1)	2(1)	-(-)	14(1)	
전북	-(-)	1(-)	5(1)	-(-)	-(-)	
전남	-(-)	3(3)	-(-)	-(-)	6(-)	
경북	-(-)	2(-)	-(-)	-(-)	2(-)	
경남	1(-)	1(-)	1(-)	1(1)	-(-)	
제주	1(-)	-(-)	1(-)	3(-)	-(-)	
총계	12(3)	20(4)	61(7)	18(3)	84(1)	
누계	89(5)	123(16)	196(45)	83(19)	185(35)	

◎ 자궁경부암

우리 나라 여자에게서 그 수가 가장 많은 암이 바로 자궁경부암이다. 자궁에 생기는 암은 그 발생부위에 따라 자궁경부에서 발생하는 자궁경부암과 자궁체부에서 발생하는 자궁내막암으로 구분되며, 발생비율은 자궁경부암이 95%정도이고 자궁 내막암이 5%정도로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자궁암이라 하면 자궁경부암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궁경부암은 진행정도에 따라 초기단계인 비침윤성 경부암과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침윤성 경부암으로 나눌 수 있다. 비침윤성 경부암은 암세포가 아직 상피조직 안에 있어 다른 곳으로 침범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 이형증과 상피내암으로 나뉘지며, 침윤성 경부암은 제1기, 제2기, 제3기 및 제4기로 나누어진다.

◎ 자궁경부암의 발생 원인

자궁경부암이 발생하는 원인이나 과정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다. 자궁경부의 상피세포는 외부의 자극(성생활 등)을 많이 받는 부위이다. 따라서 사춘기까지는 기동모양의 상피세포로 덮여 있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밖의 피부상피와 같이 여러겹의 편평상피세포로 바뀌게 되는데 완전히 바뀌기 전(20세 전후)에 성접촉이나 외부자극이 있는 경우 암발병의 위험이 높아진다.

◎ 자궁경부암의 증상

대부분의 암이 다 그렇지만 자궁경부암도 초기 단계에서는 본인에게 느껴지는 특별한 자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으며, 일단 자각증상이 나타나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각증상에 의한 조기발견은 어려운 질병이라 할 수 있다. 자궁경부암의 주요 증상으로는 자궁내 출혈을 들 수 있는데 성관계시 혹은 부정출혈로 나타나며, 특히 폐경기 후의 이상출혈의 증상이 있을 때는 주의를 해야 한다. 이외에도 일반적인 자궁경부암의 증상으로는 냄새가 많이 나는 대하, 동통 등을 들 수 있다. 자궁경부암이 진행되면 부정출혈의 빈도가 잦게 되고 양도 증가하게 되면서 악취가 점점 심하게 되며, 침윤성 경부암의 말기에 가서는 복통이나 하지통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상은 암조직이 요관, 골반벽 또는 좌골신경을 침범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방광이나 직장을 침범한 때에는 소변보기가 어려워지며 혈뇨 또는 혈변을 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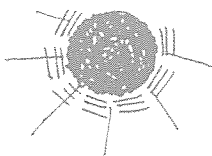
◎ 자궁경부암의 진단

세포진검사(부인과적 세포학적검사), 자궁경부 확대촬영검사, 질확대경 검사, 조직검사 등이 자궁경부암의 진단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진단방법중 특히 세포진검사는 자궁경부암의 조기진단에 일차적으로 적용하는 꼭 필요한 방법으로써 대하가 많다든가 출혈이 있는 부인이나 아무 증상이 없는 부인들 중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보아야 하는 대상을 선별하는데 적합한 진단법이며, 대체로 자궁경부암 진단에서는 75~80%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세포진검사는 자궁경부의 암발생 부위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가 자궁경관분비물이나 질분비물에 섞여 있는 것을 현미경 검사를 통해 발견하는 방법이다.

◎ 자궁경부암의 치료

자궁경부암은 초기에 발견되어 치료하면 치료방법도 간단하고 거의 완치된다. 그러나 어느정도 진행된 경우라면 그만큼 치료과정도 복잡하고 완치율도 급격히 떨어진다. 최근에는 이처럼 진행된 경우라도 치료방법과 좋은 약이 많이 개발되어 과거에 기대하지 못했던 결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병기가 너무 지났다고 해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된다.

암은 치료 후에도 재발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록 완치가 되었다고 해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계속 검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발되는 암도 조기치료할 경우 상당한 환자에서 완쾌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자궁경부암의 예방

자궁경부암의 예방을 위해서는 세포진검사와 같은 검진을 통하여 이상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예방법이다. 특히 20세 이전에 성 경험이 있는 여성은 더욱 관심을 갖고 정기검진을 받도록 해야 된다. 또한 자궁경부암은 출산이 끝난 30대 후반부터 50세까지의 연령층에서 비교적 발생율이 높고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화되기까지 수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할 때 30세 이상의 여성들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7]

정기검진

